

神話 속의 醫學 -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서 홍 관

요 약

신화와 과학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인류가 여러 천년을 두고 되풀이 해 온 공상과 신화를 현대의 과학이 하나 하나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니만큼 현대과학의 모체는 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서양의학이 뿌리내린 토양은 서양문명이요, 서양문명의 뿌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질병이나 증상을 표현하는 의학용어의 상당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학문이나 사상도 배경을 이해하면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신화를 통한 접근이야말로 서양의학을 배우는 우리가 한번은 걸어야 할 길이다.

왜 신화인가?

21세기가 시작되어 인간복제가 가능하고 온갖 인공장기가 만들어지는 첨단의학의 시대에 왜 신화를 이야기하는가? 신화야말로 가장 오래된 일이며 현대인과 완전히 동떨어진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과연 그럴까?

60년대 미국은 달나라를 정복하고자 머큐리 계획과 아폴론 계획을 세워 결국 1969년에 달에 도착하는 쾌거를 이룩한다. 그런데 현대 과학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 계획에 등장하는 이름은 엉뚱하게도 수천년 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라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주 과학 뿐 아니라 의학이나 약학에 등장하는 용어에도 신화에서 차용한 용어가 많음을 알고 놀라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신화와 과학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인류가 여러 천년을 두고 되풀이 해 온 공상과 신화를 현대의 과학이 하나 하나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니 만큼 현대과학의 모체는 신

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하늘을 나는 신들의 이야기야 많지만,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신화를 드디어 이루어 달나라에 도착하기도 하였고, 마찬가지로 끝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현대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실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의학 또는 의학 속에 등장하는 신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신화 속의 의학

1. 천지 창조 설화: chronic, amnesia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처음에 이 세상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온 우주와 온 땅은 평평집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형상이나 질서가 없는 혼돈 즉 카오스(chaos) 상태였다. 카오스에서 맨 먼저 태어난 신이 가이아였다고 한다. 가이아는 대지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가슴과 유방이 유난히 발달된 생산의 상징으로서 스스로 사랑의 신인 에로스(Eros), 암흑의 신 에레보스,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os, 우라뿔의 어원) 바다의 신

폰두스를 혼자서 낳았다. 가이아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주선으로 자기가 낳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혼하였고, 덕택에 우라노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12남매가 바로 티탄(巨神族)이다. 이들 중 셋째 딸은 므네모쉬네(Mnemosyne) 즉 기억이라는 뜻이다. 이 므네모쉬네에게서 우리가 뮤즈라고 부르는 예술의 여신들인 무사이(Mousai) 9자매가 태어난다. 기억상실증을 뜻하는 amnesia는 부정(否定)을 뜻하는 a-와 mne와 증상을 뜻하는 접미사 -sia를 합한 것이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는 외눈박이 거인 3형제와 백수 거인 3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말쑥꾸러기여서 탄탈로스라는 무한지옥에 넣었다. 이들에게 질린 가이아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라노스의 생식기능을 없애기로 하였다. 막내아들 코로노스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우라노스가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덮었을 때 우라노스의 페니스를 낫으로 잘라버렸다. 피의 정기와 사랑의 정기가 뿌려져 피의 정기에서는 에리취에스 자매라는 복수의 여신들과 기간테스라는 거인들이 태어났고, 사랑의 정기에서는 바다에 떨어져 거품이 되어 떠돌다가 뒷날 퀴프로스 섬에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로 태어난다.

크로노스(Cronos)는 시간의 신이다. 그는 모든 세상의 존재가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낫으로 종말이 다가온 것을 가차없이 소멸시키고 있다. 그의 이름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들만 들어졌다. chronicle은 연대기를 뜻하고, synchronize는 시간을 맞춘다는 뜻이다. 의학에서 만성을 뜻하는 chronic도 바로 크로노스에서 온 말이다.

2. 醫神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 hygiene, panacea

크로노스는 누이인 레아를 아내로 맞았는데 아이를 낳는 족족 삼켜버리고 말았다. 레아는 여섯째 아이인 제우스를 임신하여 아기 대신 바윗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자 크로노스가 삼켜버렸다. 제우스는 요정의 품에서 성장했고, 훗날 크로노스를 찾아와 토제를 먹여 그동안 삼켰던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이렇게 5남매를 토해내도록 하였다. 이후 제우스가 신들의 왕좌에 앉게 된다.

제우스는 티탄족들과 한바탕 큰 싸움을 치른 뒤에 스스로 신들의 왕이 되어 아우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아들 아폴론에게는 태양을, 딸 아르테미스에게는 달을 맡겼다. 태양의 신 아폴론은 수금(하프)의 명수로서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활쏘기의 명수이기도 하고, 의학의 신이기도 하다.

아폴론과 육체관계를 맺은 테살리아의 미녀 코로니스는 그후에 아폴론을 배반하여 신이 아닌, 인간과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아폴론의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아폴론의 하인인 까마귀가 고자질하자 분노한 아폴론은 까마귀에게 “너는 왜 뽀죽한 너의 부리(주둥이)로 그놈의 인간의 눈을 쪼아버리지 않았느냐?”고 노발대발하였다. 이 저주 때문에 그때까지 눈같이 희던 까마귀의 깃털이 새까만 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한다. 노한 아폴론은 이스키스를 살해하였으며 아폴론의 누이 아르테미스는 코로니스를 살해하였다(일설에는 아폴론이 아르테미스의 활로 쏘았다고 한다). 아폴론은 코로니스를 불태우는 장례식의 불길 속에서 아들을 구해냈다. 아폴론은 아기 아스클레피우스를 켄타우루스(반인반마) 키론이 사는 곳으로 데려갔고, 그 키론은 그에게 약초, 약물에 대해서 가르쳤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이 좋아서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가 되어 저승에 사람이 오지 않자, 저승의 신 하데스가 놀라 제우스에게 간청했다.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지구상의 명의(名醫)를 죽이고 말았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후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었다.

그의 아내 에피온(Epione)은 통증을 덜어주는 신이 되었고, 그의 맏딸 히게이아(Hygeia)는 위생의 여신, 그의 작은 딸 파나케이아(Panakeia)는 치료를 맡았고, 아들 텔레스포로스는 환자 회복기에 아버지를 동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히게이아에서 위생을 뜻하는 hygiene 이 나왔고, 파나케이아에서 만병통치약을 의미하는 panacea가 나왔다.

의학의 신으로서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는 신전은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하여 그리스와 로마까지 번성하였으며 이중 에피다우로스와 페르가몬의 것이 유명했다.

신전에는 기적적인 치료를 묘사한 명판과 성공적인 치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봉납물이 놓여졌

며, 가장 중요한 장소는 잠자는 장소인 아바톤이었다. 주변에는 극장, 제조실, 운동장, 여관이 있는 곳도 있었다. 환자가 오면 우선 음식을 가려먹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목욕하고, 희생제물(수탉)을 바치고, 흰옷을 입고 기다리면, 밤에 사제가 아스클레피오스 복장을 하고, 회진(?)하였는데 주로 민간요법 또는 간단한 외과술이 시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수면을 통한 치료 암시를 가장 중시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분위기에서 진료가 행해져서 신전의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는 뱀을 많이 기르고 있었으며 불임을 치료할 때 뱀을 여성의 배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한다. 뱀은 껍질을 벗으므로 회춘을 뜻한다고 믿었고, 또 뱀은 땅속에서 생겨나므로 새로운 생명의 출산으로 믿었기 때문에, 뱀을 의술의 심볼로서 삼아왔으며 이로서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는 항상 뱀이 감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3. Medicine

Medicine의 어원은 Media이다. Media는 무당, 영매(靈媒), 중개, 중간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사의 조상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문화권에서나 무당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질병을 신의 저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풀어줄 무당이 필요했다. 중국에서도 의(醫)의 원래 글자는 '巫'자가 들어있는 醫(의)였을 보면 이런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메데이아라는 여신이 있었다. 콜키스 국의 왕인 아이아테스의 딸이며 태양신인 헤리오스의 손녀뻘이 된다. 그녀의 장기는 마술이었다. 옛날에 이아손이라는 왕자가 있었다. 숙부인 펠리아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중에 왕국의 반환을 요구하자, 숙부는 "만약 황금빛 양털가죽을 가져온다면 나라를 돌려주마"라고 했다. 이아손은 아이아테스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빛 양털가죽을 빼앗으러 가기 위해 노가 50개나 달린 큰배를 만들어 놓고 전국의 영웅 50명을 모았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아르고선의 원정 모험이다. 배를 탄 용사들은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황금빛 양털가죽을 가진 아이아테스 왕을 만났다.

아이아테스 왕에게는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두 마

리의 소가 있었는데, 이 소는 코에서 불을 뿜으며, 청동의 발굽을 가진 소들인데, 그 옆에는 사람이 얼씬도 못하는 소였다. 왕은 이아손에게 "네가 저 소의 고삐를 잡아 매고서 용의 이빨을 땅에 심을 수 있다면 금수양피를 내어주지."라고 어려운 과제를 내는 것이었다. 이아손에 반한 왕의 딸인 메데이아는 "나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녀는 마술로 그를 도왔는데, 불이나 칼에도 해를 입지 않는 약을 그에게 주었다. 이 약의 힘으로 사나운 소를 매어 놓고서 용 이빨을 땅에 심었더니 그 자리에서 무장한 무사들이 땅속에서 솟아 나왔다. 이아손은 숨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니, 서로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이 틈을 타서 이아손은 무사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러나 과제를 수행했는데도 왕은 금수양피를 내어주지 않는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아손이 타고온 아르고선을 불질러 태우고 영웅들을 모두 죽여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이아손은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밤중에 황금빛 양털가죽을 지키고 있는 용을 잠재워 놓고 양피를 훔쳐서는 배타고 도망쳤다. 아이아테스왕은 이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추적해왔다. 메데이아는 도망칠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자기 동생을 갈기갈기 찢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추격해오던 부왕이 아들의 신체 도막을 모으는 동안에 이아손의 배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둘은 파리아케스의 왕인 알키노스의 궁전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아손과 메데이아 부부는 머리를 짜내었다. 메데이아는 페리아스의 딸들을 불러 놓고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양(羊)을 토막내어 약초를 넣은 큰 가마솥에다 넣고선 불을 지피서 삶은 후에 솥뚜껑을 열어보니 늙은 양이 젊어져서 뛰어나왔다. 메데이아는 딸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 페리아스를 토막내어 약가마에 담아 넣은 뒤에 삶으면 늙은 아버지가 젊어질 것이라고 권한다. 딸들은 그말을 곧이 듣고 자기 아버지를 토막내어 가마솥에 넣고 끓였는데, 메데이아는 솥 안에다 진짜 약 대신 가짜약을 넣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인 페리아스는 죽고 말았다.

이런 사건으로 메데이아와 이아손은 추방되어 코린토스에 와서 아들 둘을 낳고서 10년을 살았다. 그

런데 이아손은 코린토스왕의 딸과 결혼하고자 메테이아와 이혼했는데, 메테이아는 자기들의 두 아들을 죽이고선 독약에 담긴 옷을 코린토스 공주와 공주아버지인 왕에게 보냈더니 옷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서 왕과 공주는 타죽고 말았다. 메테이아는 약의 묘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마술도 잘 부렸다 해서, 그녀의 이름 메테이아라는 이름에서 메디신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4. 병명, 증상

1) Typhus 티푸스: 튜폰은 대지의 신인 가이아가 지옥으로 떨어진 탄타로스와 교접하여 낳은 아들인데, 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머리카락은 하늘의 별에까지 뻗었고, 팔의 길이는 좌우 모두 480 km나 되며, 두 팔을 벌리면 오른손은 지구의 동녘끝에 왼손은 서쪽 끝에 닿았다고 한다. 거드랑이에는 백마리의 뱀대가리가 달려서 그놈들이 항상 폭풍같은 소리를 썩씩하고 내는데, 두 팔을 한시도 가만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전신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퍼던 햇빛이 가려져서 천지가 어두워진다. 두 눈에서는 불을 뿜고 있으며, 백개나 되는 머리에 달린 백 개의 입으로부터 항상 바위를 토해낸다(튜폰은 화산을 인간으로 표현).

이렇게 무시무시한 티탄족들과의 싸움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열세에 물려서 이디오피아까지 도망가서 동물로 변신을 해야만 했다. 제우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번개와 천둥을 퍼부어서 거인 튜폰의 머리를 태워서 겨우 퇴치해 버렸지만, 튜폰은 아주 죽은게 아니어서 제우스가 그에게 던진 에도나 산 밑에 깔려서 아직까지 불을 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말로는 Typhos, 라틴말로는 Typhus는 원래 연기를 뜻하는 말이다. 발진티푸스는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사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기에 typhus라고 불렀을 것이다. 장티푸스는 이와 유사하면서 다른 열병이었기 때문에 typhoid fever라고 불렀다.

2) Hermaphroditism 남녀한몸증(암수한몸증):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이마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헤르메스는 재간이 많아서 제우스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해낸다. 그는 지팡이 하나와 날개가 달린 가죽신을 신고 있다. 지팡이는 신이든 인간이든 건드리기만 해도 잠이 들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고, 가죽신은 하루에 만리길을 갈 수 있는 마법의 신발이었다. 그는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는 말솜씨가 좋아서 상업, 도박, 돈놀이, 도둑질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프로디테가 대장장이 남편 헤파이스토스 몰래 헤르메스와 사랑을 나누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이고 둘째 아이가 에로스인데 큰 아들의 이름은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합성하여 만든 이름이다.

미소년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멀리 여행을 떠나 카르나소스 호수에 이르렀다. 이 호수에는 살마키스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이 살고 있었다. 이 요정은 미소년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을 호소해도 반응이 없자 몸이 달아오른 요정은 호수에 들어가 수영하는 미소년을 꺼안고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신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어 결국 두 가지 성을 가진 양성(兩性)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3) Priapism 지속발기증: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제우스도 그녀를 연모하여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혼인의 신인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질투심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만약에 아프로디테가 아기를 낳는다면, 훌륭한 아버지와 빼어난 어머니를 닮아 신들의 위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악의에 찬 헤라는 배가 부르기 시작한 아프로디테의 배에다 손을 대었다. 그 결과 출산한 아기는 괴상한 얼굴에 몸뚱이보다도 더 큰 페니스를 단 괴물이었다. 산모는 부끄러워서 이 아기를 내다 버렸는데 어떤 양치는 목자가 주워기르게 되었다. 이 아이가 바로 프리아포스로서 생산력의 심볼로서 신으로 승격되어 존경을 받았다. 이 신화에서 유래되어 지속적으로 발기된 상태를 지속발기증, 영어로는 priapism이라 한다.

4) Caput medusae 메두사머리: 그리스 신화에 고르곤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은 지독히도 못생겼고, 이는 돼지 이빨이고 뿔쇠같이 거친 손을 가졌으며, 머리카락은 뱀이었다. 누구나 이 여괴(女怪)를 한번

보기만해도 당장에 돌로 변해버렸다. 이들은 죽음의 나라 가까운 곳, 다시 말하면 세계의 서쪽끝에 살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고르곤 중에서도 메두사만이 그리스신화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세 자매 중 둘은 불사신이었는데, 메두사만은 죽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메두사는 본래는 아름다운 아가씨였었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미녀였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서 여신 아테나와 미를 겨루었기 때문에 여신은 화가나서 메두사의 미를 박탈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들을 퇴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다른 고르곤 자매는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가진 메두사만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서 빌린 구두와 아테나에게서 빌린 방패와 낫쇠로 만든 낫을 갖추어 메두사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만약에 메두사를 직접보든지 또는 메두사가 먼저 페르세우스를 보든지 한다면 당장에 돌로 변하게 될 것이므로 페르세우스는 거울을 손에 들고서 거울에 비친 괴물을 향해서 접근하여 예리한 칼로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다.

상처에서 뽑어나오는 피속에서 황금의 칼을 손에 쥔 크류사올과 천마 페가수스가 탄생했는데,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루에다 넣고서는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메두사의 두 자매의 추적을 벗어나 무사히 돌아왔다. 그후에 이 모험을 승리로 인도해준 아테나여신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바쳤더니, 여신은 그것을 자기의 방패에다 장식으로 달았다. 이것이 아테나시의 문장(紋章)이 되었다.

간경변이 있을 때 portal vein이 막혀서 상대정맥으로 가는 collateral vein이 발달한 모양이 마치 메두사의 머리카락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메두사의 머리(caput medusae)라고 한다.

5) **Aura** 조짐: 프루기아의 여자 페리보이아와 거인신 티탄인 레란토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님프가 아우라였다. 아우라는 어쩌나 달리가 빠르던지 그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그녀에게 반해서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가면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 버리곤 했다. 디오니소스를 가

옆계 여긴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아우라를 미치게 해버렸다. 광기를 일으킨 미녀를 붙잡아서 주신이 사랑을 나누자 아우라는 잉태하여 쌍둥이를 낳았지만, 실성한 어머니인 아우라는 한 아이를 삼켜 버렸다. 나머지 아들인 이앗코스는 디오니소스의 다른 애인들의 힘을 입어 양육을 받았으며, 미쳐버린 아우라는 상가리오스강에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제우스는 불쌍히 여겨 그녀를 샘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다.

간질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간질의 전조가 나타나는 것이 바람과 같이 빨리 광기의 바람을 몰고왔던 아우라를 연상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6) **Syphilis** 매독: 프라가스트로는 '시필리스, 일명 프랑스병'이라는 의학시(醫學詩)를 발표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시필리스라는 젊은 미청년은 원래 양을 치는 청년이었다. 그는 태양신 아폴론의 제단을 빼앗아서 이것을 자기가 섬기는 양치기의 신의 제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폴론의 노여움을 사서 천벌을 받았다. 이 천벌의 모습과 16세기에 유럽에 유행한 매독과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프라가스트로는 매독을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시필리스의 천벌에 빗대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미남 청년의 이름은 매독의 이름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프라가스트로는 질병의 원인을 어떤 보이지 않는 씨앗(seed)으로 주장해서 장기설(瘴氣說, miasma theory)과 대립되는 전염병설(germ theory)을 최초로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5. 정신과 용어

1) **Psychosis**: 그리스말로 프슈케(Psyche)는 정신이나 혼 또는 나비라는 뜻이다. 그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슈케라는 미소녀에서 유래된다.

딸 셋을 둔 임금이 있었다. 세 딸이 모두 예뻐오나 그중에서도 막내딸 프시케는 가장 예뻐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그녀의 미를 찬미하는 바람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미의 여신은 복수를 하고자 아들 에로스를 불러서 명령하기를 "네 화살로 프시케를 쏘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를 연모하도록 하라"고 일렀다. 에로스는 어머니

분부대로 프시케를 쏘러 가서 그녀를 보자마자 그만 황홀한 미모에 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로 자기 가슴을 찔러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에로스가 프시케를 연모하게 되어 상사병에 걸리고 만다.

한편 프시케의 두 언니들은 행복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건만 아름다운 프시케만은 누구하나 청혼하는 자가 없었다. 그 까닭은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딸의 운명을 알아보고자 아버지가 아폴론 신에게 신탁을 청했는데, 신탁에는 '네 딸에게 상복을 입혀서 바위산 꼭대기에 혼자 두면 누군가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몸에 날개가 달린 무서운 뱀이니라.'라는 말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상사병에 걸린 에로스가 미리 아폴론 신에게 도움을 청해 두었기 때문이다.

산 위에 홀로 누워있는 프시케의 주위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지더니 어두워져버렸다. 모든 것을 단념했다지만, 눈물만을 흘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프시케는 별안간 아주 기분 좋은 서풍이 불어옴을 느껴자마자 몸이 가볍게 하늘로 기분 좋게 떠 올라감을 느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오는 폭신한 풀밭 위에 몸이 눕혀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환한 아침이었다. 살펴보니 맑은 시내가 흐르는 꽃동산 위에는 눈부시게 크고 화려한 성이 서 있는데,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부터는 이성은 프시케님 집이고 저희들은 모두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성 안에는 호화로운 가구가 찻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탁에는 산해진미가 차려져있건만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밤마다 남편 에로스는 찾아와서 동침하지만, 눈뜨기 전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프시케는 행복하기만 하였다.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언니들이 프시케를 찾아왔다. 동생 잘 된 것을 보고 시기한 언니들은, "네 남편은 필경 괴물일테니, 잠자고 있는 틈에 등잔불로 비추어 보아서 괴물이면 단도로 찔러 죽이라."고 충동이질하는 바람에, 마음 약한 프시케는 남편이 절대로 자기 얼굴만은 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도 타이르던 것을 잊어버리고 등잔불을 들고서, 한 손에는 단도를 쥔 채 자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니, 괴물이기는커녕 미남인 에로스였다. 잠

에서 깬 에로스는 "어리석은 여인이여, 이제 마지막 이로다"라는 말만 남기고 창으로 날아가 버렸다.

2) Narcissism 자기애: 나르키소스는 님프인 레이리오페의 아들로서 점장이가 그 어머니에게 "만약에 이 아기가 자기 자신만을 알지 않는다면 장수하는 것은 문제 없겠는데..."라는 수수께끼같은 말을 했다. 타고난 미모는 나이 열다섯이 되자 더욱 아름다워졌다. 나야키소스를 연모하여 추파를 던지는 것은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남성들도 부지기수였다. 그 중에서도 에코라는 님프의 구애가 가장 열렬했다. 에코는 산이나 동굴에 사는 미모의 님프이다.

어느 날 사냥 갔다가 피로해진 이 미소년은 마침 숲속의 물 속에서 아름다운 소년을 발견했다. 너무나 황홀해서 껴안으려고 덤비니 물결이 생겨 미소년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지만, 한참 있다 보면, 다시 웃고 있는 미소년에 반해서 그 후부터는 모든 욕망을 잃고 식욕도 없어지고 몸은 마르기 시작해서 기력조차 약해져 갔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 미소년은 자기 가슴마다 단도를 찌르고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애인아! 안녕!" 하고 울부짖었다. 피가 흘러서 대지에 스며드니 빨간 화관을 인 흰 꽃이 피었는데 바로 수선화였다.

이로부터 자기애(自己愛)의 경향이 강한 것을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 한다.

3) Nymphomania 여자색정증: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샘이나 강이나 바다 또는 숲속, 동굴들에는 젊고 아름답고 발가벗은 여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샘이나 호숫가에는 이런 님프들이 떼를 지어서 헤엄도 치고 숲 속으로 달리면서 놀고 있다고 상상했던 모양이다. 님프를 굳이 번역하자면 '숲속의 요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처녀숭배 같은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여러 신이나 인간들과 어울려서 놀고 연애하기를 즐기는 여성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롭고 대담하며 섹스에 대해서도 개방적이다. 마음만 내키면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 샘에서 목욕하고 놀고 성을 즐긴다.

이러한 님프의 성격에서 여성이 성에 탐닉하는 경우에 이를 nymphomania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우동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4) Oedipus complex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5) Electra complex 엘렉트라 콤플렉스

아들이 어머니를 연모하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것을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라고 한다면 딸이 아버지를 연모하고, 어머니와 경쟁하는 것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정신분석학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처럼 뚜렷하지도 않을뿐더러 본질적으로 볼 때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나 다를 게 없는 것이므로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용어는 그리 널리 쓰여지지 않고 있다.

트로이 전쟁때 그리스 군대의 총대장은 아가멤논(Agamemnon)이었다. 그는 크뤼타임네스트라라는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딸을 낳았으니 그 이름들은 이피게네아, 올레스테스, 엘렉트라였다. 아가멤논은 결혼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다. 그 부인은 처음엔 자기의 사촌형과 결혼했었는데, 아가멤논이 반해서, 이 여자의 남편과 그 아버지를 죽이고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유명한 트로이전쟁이 터지자 아가멤논은 그리스군의 총대장으로 싸움터로 나갔다. 트로이 전쟁에 남편이 가 있는 동안에 아가멤논의 아내 즉 엘렉트라의 생모는 아이기스토스와 정을 통하게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둘은 공모하여 아가멤논을 죽여버린다.

엘렉트라와 올레스테스는 아직 어렸다. 엘렉트라는 동생의 생명도 위협에 빠져 있음을 눈치채자 숙부인 포코스 왕 스트로피우스에게 동생을 맡기고 자기는 혼자 왕궁에 남아서 온갖 고생을 참아가며 동생이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올레스테스는 숙부 밑에서 사촌 필라테스와 함께 지내면서 그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어른이 된 뒤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알고스로 향했다. 그러나 살해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때로서는 지상의 의무였지만,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신과 사람이 모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임을 알고 고민했다.

올레스테스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끝에, 델포이로 가서 아폴론의 신탁을 청했다. 아폴론은 엄숙하게 말했다. '죽인 두 사람을 죽이라. 죽음은 죽음으로써 갚아, 흘렸던 오래된 피를 위해, 새로운

피를 흘려야 한다'

올레스테스는 필라테스와 함께 알고스 궁전으로 찾아가 누리 엘렉트라와 더불어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인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뒤이어 "오오! 내아들이여, 이 가슴을 보라. 너는 아직 이가 나지 않은 귀여운 입으로 이 가슴의 젖을 빨지 않았었니" 하고 애절하며 죽기 싫어하는 어머니도 필라테스의 격려를 받아 찢려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친어머니를 죽인 그는 그만 미치고 말았다. 그후 그는 복수의 여신 엘리누스들에게 쫓기어 여러나라를 아무런 안식도 없이 헤매게 되었다. 훗날 아테나의 집회소에서 그의 재판이 벌어졌을 때, 배심원의 절반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런 큰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사형을 요구했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무죄의 표를 던져 다행히 무죄로 해방되었다는 것이 대체의 줄거리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적인 어머니의 부재를 원한다는 마음의 mechanism에 대해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만, 엘렉트라의 복수가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이 밑바탕이 된 게 아닌 것이니 만큼 그리 적절한 용어라고 볼수 없겠다.

6) Panic 공황장애: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이마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어머니는 헤라의 질투를 피하기위해 헤르메스를 낳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요람 속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갓난아기 헤르메스는 요람에서 기어나와 그 근처에서 기어다니고 있던 거북을 잡아, 살은 다 파내어 버리고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거기다 여섯 가닥의 줄을 매고선 그것을 튕기면서 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악기 하프의 시초다.

무섭게도 성장이 빠른 헤르메스는 출생한 날 밤이 되자 렛사리아의 피에리아까지 뛰어가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암소를 발견하여 50마리나 훔쳐왔다. 훔쳐올 때 혹시나 누가 뒤쫓아 오지 않을까 해서 발자국이 반대로 나도록 뒷걸음질 쳐서 소를 몰고 왔다고 하니 도둑놈의 신이 될만한 소질을 보였다.

헤르메스는 불과 몇세만에 소년으로 자라났다. 무섭게도 조숙한 헤르메스는 드류옵스의 딸 드류오페라는 양치는 소녀와 사랑을 맺어 아기를 낳았는데,

낳은 아기를 한번 보자 아기어머니는 비명을 올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그 까닭은 어린애의 머리에는 염소발이 돋아나 있었고, 발도 염소발이며 턱에는 염소같이 긴 수염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명랑하고 재미있는 소년이어서 올림포스의 신들이 귀엽다고 판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

판은 가축과 양치기들의 수호신이어서 그리스 중에서도 목축이 성행하는 지방에서는 인기가 있는 존재인데, 낮잠을 좋아하며 또 호색가(好色家)여서 님프(Nympe)들의 뒤를 쫓기를 즐겼고 피리를 잘 부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드비시의 명곡 [목신의 오후(牧神의 午後)]는 게으름뱅이 판이 낮잠에서 깨어나 물 속에서 놀고있는 님프들과 시시덕거리면서 놀고있는 모습을 오선지에 그린 음악이다.

양의 모습을 한 판을 낳고 산모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헤르메스는 그 아이를 올림푸스의 신드에게 바쳤더니 이때 모든 신들이 축복을 했다 해서 이름을 판('모든'이란 뜻)이라 지은 것이다. 판은 신으로부터 총애를 받아가면서 자라는 동안에 피리를 만들어 불기를 즐겼다.

판은 낮잠자기를 즐겼는데 그가 자는 동안은 누구나 피리를 불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누가 피리를 불어서 자고있는 판을 깨운다면 숲 속이나 동굴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산이 터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떼에게 돌을 던지기도 한다.

그는 양치기의 신(목신, 牧神)일 뿐더러 음악가이며, 가축을 번식시키는 신이므로, 그가 한번 울부짖으면 목축으로 생계를 잇는 백성에게는 그보다 더한 두려움은 없었다. 그가 한번 울부짖자 제우스와 십년에 걸쳐 싸운 티탄(Titan)들도 두려워했다니 만큼 그는 공포의 심불이기도 하다. 공황장애를 panic disorder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7) Phobia 공포증: 포보스(Phobos)는 트라키아의 전쟁의 신 아레스(Ares)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는 부하라고도 하는데, 아들이라는 설이 더 유력하다.

아레스가 출전할 때 마차를 타면 자기 아들 데이모스(Deimos, 걱정이라는 뜻)와 포보스와 에리스(Eris, 불화) 및 전쟁의 여신 에뉴오(Enyo)의 네 신이 항상 그를 호위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신 아레스는 막상 싸움터에서는 그리 강한 편이 못되어, 가끔 도망도

치게 되는데 아레스가 도망칠 때 언제나 맨 앞장서서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치는 게 바로 포보스였다.

그래서 그전에는 포보스를 패주를 뜻하는 말로 쓰다가, 그 후에 차차 공포를 나타내는 말로 쓰게 되어 공포증을 phobia라고 한다.

6. 해부학 용어

1) Arachnoidal membrane 지주막(蜘蛛膜): 사람의 뇌는 석장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맨 밖에 있는 막은 dura mater 즉 경막(硬膜)이고, 안쪽을 덮은 것은 pia mater 즉 유막(柔膜)이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막이 arachnoidal membrane 즉 지주막이다. 지주막은 얇고 연한 막인데, 마치 뇌의 거죽에 거미줄을 친 것같다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아테네만은 어머니 없이 출생한 신이다. 본 마누라인 헤라가 어찌나 시기심과 강짜가 심한지 항상 두통으로 고생해 오던 제우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는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트스에게 부탁하여 도끼로 자기 머리를 빼개게 했더니, 머리 속으로부터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무장을 한 용감한 여성이 튀어나왔다. 이 처녀가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다. 아테나는 실용품과 장식품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농업, 항해술, 방직재봉기술의 여신이였다. 이밖에 그녀는 전쟁의 신이기도 했는데, 아레스가 공격적이고 때로는 무모한 전쟁의 신이었다면 그녀는 방어전으로서 평화로운 신이었다.

류디아에 아라크네라는 아가씨가 있었다. 베짜는 솜씨가 훌륭하여 자기 스스로도 자만심이 높아져서 너무 뽐내므로, 하루는 아테나 여신이 할머니로 변장해서 충고했더니 아라크네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는커녕 상대방이 아테나여신인줄도 모르고 "아테나 여신과 겨루어 봐도 내가 이길게다"라고 뽐낸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아테나 여신은 여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라크네와 베짜기 경쟁을 하기로 했다.

이 시합은 뼈를 깎고 피를 짜내는 듯이 격렬했었고 완성된 작품은 둘이 모두 올림푸스의 신들의 생활을 새겨넣는 것이었는데, 아라크네의 그림은 모두 신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림 자체는 놀랄 만큼 정교했다. 제우스 신의 변신인 백조를 껴안고 있는 레다도 있었고, 아버지에 의해 탐 속에 감금된

다나에를 만나려고 황금빛 소나기로 변신한 제우스도 있었고, 황소로 변장한 제우스를 순한 소인줄로만 알고서 미소녀 에로우페가 등에 올라탔을 때 제우스가 바다 속으로 헤엄쳐서 크레타섬으로 유괴해가는 장면도 있었다.

아테나 여신은 속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도 잘 짚네 대한 굴욕감을 느끼어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테나는 베틀의 북으로 베를 찢어 버리고, 아라크네의 이마에 손을 대어,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죄(신을 조롱하는 베를 찢)에 대해서 치욕을 느끼게끔 하였다. 이 바람에 아라크네는 참을 수 없는 울분에 밖으로 나가 목매어 죽고 말았다. 아테나는 그녀가 끈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죄많은 계집아야, 살아나거라, 그리고는 나의 교훈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은 대를 이어 목을 매고 있거라” 라고 말하면서 즈름 아라크네의 몸에 뿌렸더니 그 자리에서 아라크네의 몸은 오그라 들고 거미로 변해 버렸다. “너와 너의 자손은 영원히 그런 꼬락서니로 거미줄에 매달려 있거라”고 저주한 여신의 말대로 거미는 평생 거미줄을 만들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2) Hymen 처녀막: 휴멘이 누구의 아이인지 설이 하도 많이 판단하기 곤란하다. 아폴론과 무사이(Musai, 문예, 음악, 철학, 천문 따위의 지적활동의 여신들, 전부 9인)와의 사이에 태어났다고도 하고, 또는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와 주신인 디오니소스 간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휴멘은 여성이 아니라 미소년이었다. 이 미소년은 어떤 미소녀를 사랑하여 애를 태웠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그저 멀리서 미소녀의 뒤만 따르고 있는 참이었다. 하루는 소녀들이 에레시우스에 있는 데메테르여신의 신에 공물을 바치려고 먼길을 떠났다. 데메테르는 그리스에 있어서의 곡물과 대지의 생산물의 여신이며, 소녀들이 떼를 지어 출발하자, 휴멘 청년도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해적들이 나타나서 소녀들을 납치해갔었다. 인물고운 휴멘청년도 여자로 잘못 알고 함께 잡아가다가 인적 없는 바닷가에서 해적들은 피곤을 참지 못하여 깊은 잠이 들었다. 이 틈에 휴멘청년은 해적들을 몰살하고 미소

녀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휴멘은 혼자서 아테네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사모하는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해준다면 나머지 소녀들을 돌려보내주마고 제의했더니 소녀의 부모들이 모두 승낙했다. 이렇게 되서 휴멘은 사모하던 소녀와 결혼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후부터는 결혼식 때에 손님들이 소리높여 휴메나이오스 또는 휴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고 한다.

어떻든 휴멘은 결혼행렬에 앞장서는 미소년이고, 결혼식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높여 그의 이름을 불렀던 만큼, 그는 결혼의 인도 또는 결혼의 시작을 상징하는 미소년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휴멘은 결혼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후 처녀막을 의미하게 되었다.

3) Achillies tendon 아킬레스 건: 사람이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영웅스럽던 시절에 뭍리미돈의 왕 펠레우스는 발이 아름다워서 ‘은빛 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바다의 요정 테티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의 혼인 잔치에 올림포스의 신들도 초대되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초대받지 않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나타났다. 그녀는 잔칫상을 향하여 사과 하나를 던져 놓았는데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어 있었다.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기것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아프로디테가 차지하게 되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약속한 헤라나 지혜를 약속한 아테나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준다는 아프로디테의 말에 넘어간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어준다.

훗날 파리스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오게 되고 드디어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다. 아킬레우스는 사촌인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자랐다. 어머니인 바다의 요정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물에 담가서 불사신으로 만들었지만 그녀가 잡고 있던 발목만 약점이 남게 되었다. 펠레우스는 신탁을 통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하리라는 것을 알고 스키프로스에서 리코메테스의 궁궐로 보내 여자 옷을 입히고 공주들과 같이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아가멤논은 그를 찾아내어 전쟁에 참가

한다.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과 불화가 생겨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되는데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에게 죽자 싸우러 나가 헥토르를 죽였다. 후에 아킬레우스는 아폴론에게 화살을 얻은 파리스의 화살에 죽임을 당한다.

발꿈치에 있는 굵은 건을 아킬레스 건이라 한다. 아킬레스 건은 굵고 질기지만 갑자기 뛰거나 무용수가 무용을 시작할 때 어이없이 끊어지기도 한다.

4) Atlas 아틀라스: 경추는 일곱 개인데, 그 중에서 첫번째가 즉 아틀라스이다. 서른 두개의 추골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제일경추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거신 아틀라스가 어깨로 떠받치고 서 있는 모습같이 늠름하다 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아틀라스의 족보를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의 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야페스트는 오케아노스의 딸 크리메네와 결혼하여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등의 거신을 낳았다. 아틀라스는 티탄일족의 반란에 가담하여 올림포스의 신들과 싸웠기 때문에 제우스의 벌을 받아, 언제까지나 하늘을 어깨로 떠받치고 서 있어야 할 팔자가 돼 버렸다. 제우스와 그의 애인 알크메네 사이에 헤라클레스가 태어나자 이를 미워하는 제우스의 본처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갖가지의 난제를 부과했지만 그는 견디어냈다. 후에 에우리스테우스왕의 분부로 헤라클레스는 열두가지의 난사업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사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다.

그 사과라는 것은 헤라가 결혼할 때에 대지의 신으로부터 결혼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녀는 그 보관을 헤스페리스(금성)의 아가씨들에게 맡겼는데, 용 한 마리가 그녀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많은 모험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의 아틀라스산에 도착하였다. 사과를 자기에게 가져다 줄 사람은 아틀라스 이외에는 없음을 깨닫자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가 사과를 가지러 가는 동안 자기가 대신 하늘을 떠받치고 있겠다고 하고 그를 보냈다.

천하장사 헤라클레스도 천실을 떠받치고 있노라니 지쳐서 기진맥진해 버렸지만 얼마 후에 아틀라스

가 사과를 가지고 왔을 때는 기뻐서 어찌 할바를 몰랐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아틀라스대로 오랜 세월동안의 고역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사과는 내가 가져다 줄 테니 자네는 언제까지나 그 짐을 떠받치고 있게”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틀라스보다는 약삭빠른 헤라클레스는 “그까짓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짊어지는 것이 가장 힘이 안드는 건지 자네가 모범을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하니 인심 좋은 아틀라스는 속임수인줄도 모르고 황금사과를 땅에다 놓고 서는 대뜸 “이렇게 매는 것이 가장 힘이 덜 드는 거야”하면서 헤라클레스가 떠받치고 있던 하늘을 대신 받아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이때 땅에 놓인 사과를 주워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산을 내려갔다.

7. Morphine, hypnotics

카오스에서 태어난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여신 닙스는 혼인하여 낮의 신 헤메라와 대기의 여신 에테르를 낳은 뒤에도 많은 신을 낳았다. 여기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Thanatos)와 잠의 신 휘프노스(Hypnos)가 태어 났다. 잠을 뜻하는 휘프노스에서 최면술을 뜻하는 hypnosis (최면술), hypnotics (수면제) 등의 용어가 비롯되었다. 꿈의 신 모르페우스(Morpheus)는 원래는 모양을 빚는 자라는 뜻이다. 꿈이란 바로 모르페우스가 빚은 형상이다. 죽음과 잠과 꿈은 한 형제이다.

맺 음 말

서양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서양문명은 어느새 지구를 반바퀴 돌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서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헬레니즘이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의 예술과 학문과 그로 인한 사고방식의 의미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의학은 서양의학이다. 서양의학이 뿌리내린 토양이 바로 서양문명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의학도 그리스 로마 문명의 한 줄기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배우는 의학용어의 상당수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학문이나 사상도 배경을 이해하면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신화를 통한 접근이야말로 서양의학을 배우는 우리가 한번은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점을 신화 속의 의학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참 고 문 헌

1. 최신해. 의학 속의 신화. 정음사; 1970.
2. 에디스 해밀튼.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문예출판사; 1994.
3.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웅진닷컴; 2000.
4.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2. 서울:웅진닷컴; 2002.
5. 이주현. 신화, 그림으로 읽기. 서울:학고재; 2000.